

## • 목 차 •

- 2 포커스  
- 환자의 생명을 불모로 투쟁하지는  
않았습니다  
- Q&A 문답으로 알아보는 의약분업의  
쟁점  
- 한 소설가가 의사에게 드리는 글
- 6 진료교실  
해외여행시 말라리아 예방을 꼭  
해야하나요?
- 8 AMC NEWS
- 13 아름다운 이야기  
타국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연 떠낸 폭
- 14 부서별별 재할의학과
- 16 의과대학 둘러보기 생리학교실
- 17 나의 연구 나의 테마  
자기항체와 자기항원의 오묘한  
상호관계
- 18 내가 꿈꾸는 의료인  
기분 좋은 진료를 해주는 의사가 되고싶다
- 19 잊을 수 없는 환자  
새내기 간호사 시절에 만났던 아이
- 20 건강 Q & A  
- 설소대 단축증  
- 조모증
- 22 자원봉사활동  
이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 23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어느 진정한 의료인에 대하여
- 24 의료정보 소개  
고효율 고유량의 투석막의 재사용
- 25 잘못된 건강상식  
나도 혹시 조루나 췌루 아닐까
- 26 응급처치 이렇면 이렇게  
고온에 의한 열손상
- 7 진료시간표

## 환자 여러분에게

일주일간의 축소진료 운영으로 본의 아니게 불편과 고통을 드렸음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진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올바르고 확실한 의약분업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진료인력의 축소는 중환자와 응급환자, 그리고 이미 입원해 계신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 의료진은 새로 병원을 찾아 와야만 했던 환자 여러분의 아픔을 충분히 살피드리지 못함에 근심의 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여러분께서 저희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해 주신 덕분에 큰 과오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부가 제시한 안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개선되리라는 믿음을 갖고서 6월26일부터 진료를 정상적으로 재개합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개인적인 바램을 떠나 우리 모두 지난 시간의 아픔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서로 서로 이해하는 계기로 승화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병원도 환자 여러분의 질병 완치와 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발전되고 편리한 환자중심의 병원문화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000. 6. 26

아주대학교의료원장 강 신 영



